

유나이티드제약, 베트남 공장 준공

동남아 수출시장 노린 현지화 사업의 교두보 ... 카이로 공장도 건설

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 빈증성 산업공단에 현지 공장을 준공했다고 5월24일 밝혔다.

총 사업비 600만달러가 투입된 베트남 공장은 대지 1만2200평방미터(3700평), 건평 6600평방미터(2000평) 규모로, 종합비타민제 <홍타민 진생>, 뇌질환 개선제 <유세탐> 등 5개 품목을 생산할 예정이다.

한국유나이티드는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베트남은 물론 인근 동남아 국가에도 수출할 계획이다.

한국유나이티드 관계자는 “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두면 아세안(ASEAN) 가입국에 무관세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, 베트남 공장이 동남아 현지화 사업의 교두보가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한국유나이티드는 미국에도 현지 공장을 두고 있으며, 2004년 3월에는 이집트 제약기업인 EIMC와 합작해 수도 카이로에 공장을 건설중이다.

<화학저널 2004/05/25>